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Ego Identity, and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Educational Environment and Student Development

Kihong Kim^{*}
Daejin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how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university facility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with the university and department are structurally related to self identity and overall life satisfa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Contents] Panel data from the fifth wave (2021) of the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Survey II were analyzed using SPSS 27.0 and AMOS 27.0. The results showed that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and university facility satisfaction had positive effects on satisfaction with the university and department.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with the university and department had significant effects on self identity. In addition, self identity and satisfaction with the university and department had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university facility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Conclusions] This study empirically demonstrated that satisfaction with the university environment is linked to individual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and influences life satisfaction, and it suggested university level policy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to enhance students' life satisfaction.

[Keywords]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University facilities satisfaction, Universit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Self-identity, life satisfaction

* **Corresponding author** Kihong Kim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Teaching, Daejin University)
E-mail : kkh2211011@daejin.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Religious Education

대학생활만족도가 자아정체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환경과 학습자 발달을 중심으로

김기홍

대진대학교 교직과 조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활만족도가 자아정체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대학시설만족도와 대학 및 학과만족도를 포함한 대학 교육환경과 자아정체감, 삶의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며, 대학 및 학과만족도와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연구 내용] 이를 위해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Ⅱ 5차년도(2021)의 4년제 대학생 패널 자료 1,579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SPSS 27.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회귀분석을 수행하였고, AMOS 27.0을 이용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와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결론]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활만족도는 자아정체감과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활만족도와 대학시설만족도는 대학 및 학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대학 및 학과만족도는 자아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대학생활만족도와 대학시설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관계에서 대학 및 학과만족도와 자아정체감은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자아정체감 형성과 삶의 만족도와 같은 학습자 발달·교육성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대학생활만족도와 대학시설만족도를 포함한 교육환경 개선이 대학 차원의 정책 및 교육적 전략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대학생활만족도, 대학시설만족도, 대학 및 학과만족도, 자아정체감, 삶의 만족도

I. 서론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는 과거와 현재의 경험이 결합되어 긍정 또는 부정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개인이 주어진 삶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다(Prasoon & Chaturvedi, 2016: 25). 주관적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삶의 만족도가 높고, 부정적 경험보다 긍정적 경험을 더 많이 또는 자주 했음을 의미한다(Jung, 2017: 107). 대학생활은 12년간의 학교 교육과정을 마치고 새로운 교육 환경 속에서 다양한 발달 과업을 수행해 가는 과정으로, 대학생은 이 시기에 자율적 결정과 행동, 그에 대한 책임을 학습한다(Back & Kim, 2014: 228). 그러나 새로운 환경에서의 여러 어려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You & Park, 2015: 323), 자아정체감과 삶의 방향 탐색은 큰 도전을 겪게 된다.

대학생의 삶은 학문적 부담과 경제적 압력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도전으로 가득 차 있다. 일부 학생은 이를 잘 극복하지만, 다른 학생은 높은 스트레스와 낮은 삶의 만족도를 경험하기도 한다.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는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받으며(Back, 2017: 490; Kim, 2018: 221; Kim & Park, 1998: 239), 대학생활에서 겪는 전반적인 경험과 이를 통해 형성되는 자아정체감은 개인의 일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발달 요인이 된다. 대학생이 인식하는 만족도는 대학생활, 대학시설, 자신이 속한 대학과 학과에 대한 만족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Shin, 2023: 39). 이처럼 만족도의 의미는 추상적이고 범위가 넓어(Kang, 2020: 781), 대학생활, 대학시설, 대학 및 학과 등과 같이 관련 요소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학생이 인식하는 대학생활만족도에는 교육의 질, 교수와의 관계, 교우관계, 교육과정, 행정, 학생 지원 서비스 등 교육환경 전반이 포함된다(Astin, 1993: 44). 이와 별도로 강의 및 실습시설, 학습공간, 도서관 등 대학시설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대학 및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존재한다. 대학 및 학과 만족도는 사회적 인식과 진로 전망뿐 아니라, 전공 과목 학습 과정에서의 기대 충족, 삶의 즐거움,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설렘 등 긍정적 경험이 통합되면서 형성되는 대학과 학과에 대한 자긍심을 의미한다(Song & Cho, 2015: 355). 즉,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사회적 인식과 전망, 물리적 환경에 대한 개인의 인지·정서 경험을 포함하는 교육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Park & Choi, 2020: 183). 대학만족도는 교수·학습의 성과나 질을 대변하는 지표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Astin, 1993: 44), 대학의 기능을 파악하고 우수한 교육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동시에(Kwon & Kim, 2021: 51), 대학생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개선 목표로 활용될 수 있다(Yim, 2020: 183).

삶의 만족도는 현재 성취한 것과 자신이 바라는 것을 비교해 자신의 전반적인 존재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George, 1979: 210), 일상에서 책임감과 의미를 느끼고 자아관념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며 목표를 성취했다고 인식할 때 높게 평가된다(Neugarten, Havighurst, & Tobin, 1961:

134). 이러한 인식은 장기적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으로, 개인이 축적해 온 다양한 경험이 반영된다(George, 1979: 210). 대학에서의 경험 역시 대학과 학과에 대한 인식, 대학 생활의 기억을 통해 삶에 대한 만족감으로 나타날 수 있다. 대학에서의 만족도는 졸업 후 직장 생활의 만족으로 이어지고 행복한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학생들이 겪는 대학 교육 경험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Lim, 2013: 1). 대학생은 청소년과 성인의 경계에 있는 과도기적 발달 단계로서(Arnett, 2000: 469), 대학생활을 통해 새로운 문화와 생활양식을 정립하고, 다양한 개인·사회·심리적 문제에 스스로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Kim, 2012: 32). 이는 대학생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Lee & Kim, 2023: 63).

자신에 대한 정체성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자신의 실제 모습과 이상적인 모습을 능동적으로 통합해 가는 과정에서 확립되며(Joo, 2020: 21), 이때 느끼는 감정을 자아정체감이라 한다(Erikson, 1968: 142). 학교환경은 자아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Song & Park, 2009: 297), 특히 대학생활, 대학시설, 학교 만족도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Lee & Cheon, 2003: 511; Song & Park, 2009: 297). 자아정체감이 대학생 삶의 만족도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은(Lee & Kim, 2023: 63), 대학에서 경험하는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이 자아정체감과 삶 전체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학에서 인식되는 다양한 만족도가 개인의 특성과 연결되어 삶의 만족도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데 있다(Cho & Yoon, 2015: 157).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대학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환경적 특성을 탐색하거나(Jun, 2018: 1327; Kang, 2020: 781; Kim, 2021: 147; Park & Cho, 2011: 17),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진로, 대학 서비스 등의 요인이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왔다(Lee, 2014: 5; Park, 2006: 10).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대학 차원의 정책과 사업은 여전히 충분히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점 또한 지적되고 있다(Kim & Lee, 2018: 22). 삶의 만족도는 미래에 대한 목표와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며, 현재와 장래를 이어주는 중요한 요인이다(You & Park, 2015: 323), 학생들의 지속 가능한 개인적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Slavinski et al., 2021: 1). 따라서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대학 교육환경과 학생 발달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규명하는 일은 대학 차원의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본 연구를 통해 규명된 변인들 간의 관계는 대학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발달 지원을 위한 정책 및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를 높이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시 교육환경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선순환적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활만족도가 자아정체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대학시설만족도와 대학 및 학과만족도 등 대학 교육환경 요인이 학습자 발달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생활만족도는 자아정체감과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대학생생활만족도와 대학시설만족도가 대학 및 학과만족도, 자아정체감을 거쳐 삶의 만족도에 이르는 구조적 경로는 어떠하며, 이때 대학 및 학과만족도와 자아정체감은 어떠한 매개 효과를 가지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대학 만족도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활동과 그에 대한 만족이 현재 삶에 대한 인식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교육적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문제이다. 대학에 대한 만족은 강의실·도서관 등 시설 공간에서부터, 대학생생활 동안 경험하는 대인관계, 교육의 질, 지원 서비스, 대학 및 학과에 대한 개인적 인식까지 다양한 차원으로 파악될 수 있다(Shin, 2023: 39; Shin & Park, 2021: 569). 이러한 대학 내 요인들은 학생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Astin, 1993: 44), 물리적 조건과 구성원 간 상호작용, 생태학적 균형 관계를 이루며(Kwon, 2001: 259) 학생 성장의 기반이 된다.

1) 대학생생활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는 대학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과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 전반에 대해 학생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의미한다(Kim, 2022: 357). 대학생은 새로운 교육 환경 속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대학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는 자아정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You & Park, 2015: 323). 대학생활이 만족스러울수록 인적자원 형성을 촉진하고, 개인의 미래 삶과 사회적 자본 구축에도 도움이 된다(Jung, 2013: 53). 대학생생활만족도는 심리적 만족감, 가치관, 미래에 대한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Kim & Park, 1998: 239), 학업 노력과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Na & Shin, 2022: 45). 조준오와 송주연은 대학생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과만족도가 높고, 자기인식 측면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Jo & Song, 2011: 287). 즉,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은 자신이 소속된 현재 학교생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인지·정서적 판단 과정의 산물이라 할 수 있으며(Park & Kim, 2018: 261), 학업·사회·정서 영역에서의 대학 경험이 학생 발달에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생활이 학생에게 긍정적 경험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제도적·교육적 지원을 마련하는 것은 삶의 만족도와 자아정체감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다.

2) 대학시설만족도

대학시설은 학교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일정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교육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을 의미한다(Yang, 2012: 15). 이는 대학교육의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간과 형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Shin et al., 2019: 30). 대학시설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강의실·실습실·도서관 등 기본 교육시설뿐 아니라, 학생에게 쾌적한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시설을 포함해야 한다(Lee & Cho, 2008: 21). 교육시설, 강의지원 시설, 정보화 수준과 같은 요소는 대학 선택과 대학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Kim, 1998: 9), 도서관 공간과 자료를 포함한 대학시설 요인 역시 학생 만족도와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 Jung, 2010: 241). 따라서 대학시설만족도는 수업·학습 등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충족감과,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심리적 환경에 대한 학생의 평가라고 할 수 있다(Jun, 1998: 19).

3) 대학 및 학과만족도

대학 및 학과 만족도는 대학의 인지도와 향후 전망과 같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전공과목 학습 과정에서 새로운 학문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고, 삶의 즐거움과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설렘 등 긍정적 경험이 축적되면서 형성되는 대학·학과에 대한 자긍심을 포함한다(Song & Cho, 2015: 355). 즉, 대학 및 학과에 대한 만족은 대학생이 느끼는 인지·정서적 반응의 복합체로서 주관적 교육 경험을 의미한다(Yun, 2021: 119). 대학생의 학교 만족도 요인에는 대학 평판과 같은 외부적 요인뿐 아니라, 자아정체감과 전공만족도 등 개인 특성도 포함될 수 있다(Na & Shin, 2022: 45). 학과 만족도는 개인 특성과 대학시설 등 외부 교육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Chung & Cho, 2015: 143), 졸업 후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Logue, Hutchens, & Hector, 2005: 393). 따라서 대학과 학과에 대한 만족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교수, 행정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이 협력하여 교육과정, 학생지원,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2.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은 자신의 실제 모습과 이상적인 모습을 능동적으로 통합해 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본질을 뚜렷하게 정립했을 때 느껴지는 주관적이면서도 비교적 일관된 감각 또는 감정을 의미한다(Erikson, 1994: 142; Song & Park, 2009: 297). 특히 자아정체감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자아를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획득될 수 있으나, 적절히 확립되지 못할 경우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삶의 만족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Joo, 2020: 21).

대학생은 미래 진로와 삶의 방향을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발달 시기에 놓여 있으며(Lee & Kim, 2023: 63), 대학생활에서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바탕으로 안정된 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아정체감이 잘 형성된 대학생은 다양한 위기와 도전을 보다 성공적으로 대처하며 삶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Lee, 2015: 30; Lee & Kim, 2010: 135; Park & Kim, 2022: 39). 자아정체감은 개인이 스스로 수행해야 하는 발달과업으로 볼 수 있지만,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학습자·수요자 중심에서 바라볼 때, 안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상담, 학생지원 체계를 대학 차원에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삶의 만족도

삶의 목표는 개인마다 다르며, 이러한 목표는 미래지향적 태도와 방향을 설정해 줌으로써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Lim, 2021: 999). 삶의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과거·현재·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를 비교하며 자신의 삶을 주관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삶의 만족은 주관적 판단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인간 삶 전반에 대한 평가이며,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 요소를 함께 포함하는 개념이다(Diener & Emmons, 1984: 1105).

대학생 시기는 학문 탐구와 다양한 대학생활 경험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반을 형성하고 미래 삶을 구체화해 가는 인생의 전환기이다(Joo, 2015: 189). 이 시기의 삶의 만족도는 미래에 대한 목표와 동기부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You & Park, 2015: 323), 대학생활 동안 겪는 다양한 경험 속에서 형성된다(Yun, 2021: 119). 대학생활 과정에서 학생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습득하고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경험하면서 교직원·교우와의 유대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You & Park, 2015: 323). 교직원과 교우 간 유대감, 지지와 도움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미래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강화된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신념은 주관적 행복과 심리적 안녕감을 높여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Lee, 2010: 251), 긍정적인 대학생활 경험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인식하게 한다(Kim & Lee, 2011: 53). 반면, 대학생활에서의 혼란과 갈등은 대학생활 부적응으로 이어져 삶의 만족도를 낮출 수 있다(You & Park, 2015: 323).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대학에서 경험하는 전반적인 만족도, 즉 교육환경, 대인관계, 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은 대학생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이 경험하는 내·외적 환경과 개인이 지닌 심리적 특성 간 관계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대학생활만족도를 포함한 교육환경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교육학적 과제라 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Ⅱ 5차년도(2021) 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Ⅱ 5차년도 조사는 1차년도(2016) 학생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며, 2차년도(2017) 조사의 주된 패널이었던 고등학생들이 대학과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를 추적한 3차년도(2019), 4차년도(2020) 조사의 후속 조사로, 고등교육 과정과 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종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5차년도 조사는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2020년 12월 기준으로 불성실 응답과 결측치를 제외한 4년제 대학생 1,597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중 남학생은 414명(25.9%), 여학생은 1,183명(74.1%)이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인식하는 대학생활만족도, 대학시설만족도, 자아정체감, 대학 및 학과만족도, 삶의 만족도를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Ⅱ의 관련 문항 일부를 활용하였다. 삶의 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

대학생활만족도는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학생 고민 상담, 진로 정보 제공과 상담,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 의견 반영 등을 포함한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대학시설만족도는 대학의 물리적·교육적 시설에 대한 만족을 묻는 강의 및 실습 시설, 컴퓨터 사용 환경 등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아정체감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가치에 관한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포함한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대학 및 학과만족도 측정에서 소속 대학 만족도 문항은 “2020년 12월 기준으로 생각할 때, 귀하의 대학에 만족하십니까?”, 소속 학과 만족도 문항은 “2020년 12월 기준으로 생각할 때, 귀하의 학과(계열, 학부, 전공)가 만족하십니까?”의 각각 단일문항을 하나의 잠재변인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대학 및 학과만족도는 대학생활만족도 문항과 측정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복 문항 구성을 피하고 학생이 지각하는 전반적 평가를 반영하기 위해 단일 문항 지표로 활용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묻는 문항으로, 삶의 행복감과 삶 전반에 대한 만족 등을 포함한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0점에서 10점까지의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표 1>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Table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변인		요인부하량	고유치(EV)	설명변량(%)	신뢰도
대학생활 만족도	대학생활만족1	.474	3.832	19.161	.844
	대학생활만족2	.724			
	대학생활만족3	.708			
	대학생활만족4	.768			
	대학생활만족5	.733			
	대학생활만족6	.684			
	대학생활만족7	.576			
	대학생활만족8	.563			
대학시설 만족도	대학시설만족1	.760	2.197	14.207	.785
	대학시설만족2	.847			
	대학시설만족3	.772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1	.783	2.102	10.511	.784
	자아정체감2	.844			
	자아정체감3	.734			
대학 및 학과 만족도	학과 만족도	.800	1.564	7.818	.719
	대학 만족도	.782			
삶의 만족도	삶 만족도1	.867	2.841	14.207	.847
	삶 만족도2	.892			
	삶 만족도3	.783			
	삶 만족도4	.640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Cronbach's 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1>과 같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KMO(Kaiser-Meyer-Olkin) 값은 .88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chi^2=12741.549$, $df=190$, $p=.000$) 유의미하게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로 확인되었으며, 5개 변인은 전체 변량의 62.682%를 설명하였다. 신뢰도 검증 결과 .719 ~ .847로 모두 .70이상으로 확인되어 신뢰성이 있는 측정도구임을 알 수 있었다.

3. 분석방법

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 대학시설만족도, 자아정체감, 대학 및 학과만족도, 삶의 만족도 변인들의 기술통계, 요인분석, 회귀분석 등을 위해 SPSS 27.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 결과와 왜도와 첨도 값을 산출하여 정상분포를 확인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KMO(Kaiser-Meyer-Okin)와 Bartlett 구형성 검증을 통해 분석에 사용된 상관행렬이나 표본의 크기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였다. 각 변인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측정문항들이 구성요인에 대해 내적일관성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자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를 구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변수 투입 방법 중 입력을 사용하였다(Heo, 2013: 20).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활용하였고 AMOS 27.0 프로그램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을 검증한 후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RMR, GFI, NFI, TLI, CFI, RMSEA 값의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모형 적합도 검증 후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간접효과 검증을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대학생들의 대학생활만족도, 대학시설만족도, 자아정체감, 대학 및 학과만족도, 삶의 만족도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상관분석 결과, 대학생활만족도와 대학 및 학과만족도의 상관계수는 .489($p<.01$)로 가장 높은 관련성이 있었으며, 모든 변인 관계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의 수준에 대한 분석결과 삶의 만족도($M=7.95$, $SD=1.27$), 대학시설만족도($M=3.95$, $SD=.61$), 자아정체감($M=3.91$, $SD=.65$), 대학 및 학과 만족도($M=3.83$, $SD=.65$), 대학생활만족도($M=3.68$, $SD=.52$)로 평균과 표준표차가 나타났다. 모든 변인들의 왜도(± 2 미만)와 첨도(± 4 미만)는 조건을 만족하여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대학생활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

<표 2>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구분	대학생활만족	대학시설만족	자아정체감	대학및학과만족	삶의 만족
대학생활만족	1				
대학시설만족	.460**	1			
자아정체감	.294**	.217**	1		
대학및학과만족	.489**	.304**	.359**	1	
삶의 만족	.265**	.153**	.472**	.370**	1
M	3.68	3.95	3.91	3.83	7.95
SD	.52	.61	.65	.65	1.27
왜도	-.27	-.77	-.48	-.52	-.79
첨도	1.24	2.47	.17	1.10	.73

** $p<.01$

<표 3> 삶의 만족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Life Satisfaction

구분	비표준화 계수		β	t	유의확률	공차	VIF
	B	SE					
(상수)	3.169	0.093		33.935	0.000		
학생들간의 관계	0.087	0.021	0.114	4.098	0.000	0.749	1.335
학생 고민 상담	0.017	0.022	0.025	0.742	0.458	0.520	1.925
진로상담 및 정보제공	0.036	0.023	0.052	1.561	0.119	0.515	1.940
학교 운영 학생 의견 반영	0.052	0.019	0.084	2.690	0.007	0.586	1.707
교과목에 대한 교수님 지도	-0.004	0.022	-0.006	-0.189	0.850	0.596	1.677
다양한 교육 과정	0.073	0.020	0.112	3.701	0.000	0.625	1.601
공정한 성적 평가	0.039	0.022	0.051	1.765	0.078	0.681	1.468
기초학습프로그램 운영	-0.032	0.016	-0.054	-1.989	0.047	0.785	1.274

$F=18.722$ $R=.294$ $R^2=.086$ $Durbin-Watson =1.840$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F=18.722$, 유의확률이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다중공선성 확인 결과 VIF 값이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Noh,

2019: 108). 대학생활만족도 하위변인 중 학생들간의 관계,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 의견 반영, 다양한 교육과정, 기초학습프로그램 운영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학생 고민 상담, 진로 상담 및 정보 제공, 교과목에 대한 교수님 지도, 공정한 성적 평가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자아정체감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Ego-Identity

구분	비표준화 계수		β	t	유의확률	공차	VIF
	B	SE					
(상수)	2.487	0.118		21.066	0.000		
학생들간의 관계	0.097	0.027	0.099	3.608	0.000	0.749	1.335
학생 고민 상담	0.058	0.028	0.068	2.048	0.041	0.520	1.925
진로상담 및 정보제공	0.078	0.029	0.089	2.684	0.007	0.515	1.940
학교 운영 학생 의견 반영	0.013	0.025	0.017	0.531	0.595	0.586	1.707
교과목에 대한 교수님 지도	0.048	0.027	0.055	1.770	0.077	0.596	1.677
다양한 교육 과정	0.059	0.025	0.071	2.356	0.019	0.625	1.601
공정한 성적 평가	0.042	0.028	0.043	1.472	0.141	0.681	1.468
기초학습프로그램 운영	-0.017	0.020	-0.023	-0.837	0.403	0.785	1.274

$F=21.109$ $R=.310$ $R^2=.096$ $Durbin-Watson =1.520$

자아정체감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F=21.109$, 유의확률이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다중공선성 확인 결과 VIF 값이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Noh, 2019: 108). 대학생활만족도 하위변인 중 학생들간의 관계, 학생 고민 상담, 진로상담 및 정보 제공, 다양한 교육과정은 자아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 의견 반영, 교과목에 대한 교수님 지도, 공정한 성적 평가, 기초학습프로그램 운영은 자아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각 하위변인을 측정변인으로 하여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

<표 5> 측정모형 적합도 지수

<Table 5> Goodness-of-Fit Indices for the Measurement Model

χ^2	RMR	GFI	NFI	TLI	CFI	RMSEA
700.356	.021	.956	.945	.949	.957	.046

<표 6> 측정모형의 경로계수

<Table 6> Path Coefficients of the Measurement Model

잠재변인		측정변인	β	B	S.E	C.R.	CR	AVE
자아정체감	→	자아정체감1	0.633	0.755	0.032	23.248	.865	.685
자아정체감	→	자아정체감2	0.814	1.086	0.04	27.39		
자아정체감	→	자아정체감3	0.785	1				
대학및학과 만족도	→	학과 만족도	0.741	0.962	0.045	21.391	.823	.700
대학및학과 만족도	→	대학 만족도	0.757	1				
삶 만족도	→	삶 만족도1	0.748	0.949	0.027	35.468	.941	.806
삶 만족도	→	삶 만족도2	0.929	1.131	0.024	46.975		
삶 만족도	→	삶 만족도3	0.868	1				
삶 만족도	→	삶 만족도4	0.518	0.605	0.028	21.767		
대학생활만족	→	대학생활만족1	0.549	1			.906	.552
대학생활만족	→	대학생활만족2	0.729	1.514	0.074	20.532		
대학생활만족	→	대학생활만족3	0.738	1.491	0.072	20.684		
대학생활만족	→	대학생활만족4	0.678	1.52	0.077	19.696		
대학생활만족	→	대학생활만족5	0.666	1.333	0.068	19.478		
대학생활만족	→	대학생활만족6	0.644	1.377	0.072	19.08		
대학생활만족	→	대학생활만족7	0.616	1.115	0.06	18.55		
대학생활만족	→	대학생활만족8	0.492	1.164	0.073	15.852		
대학시설만족	→	대학시설만족1	0.720	1			.874	.700
대학시설만족	→	대학시설만족2	0.803	1.092	0.044	25.095		
대학시설만족	→	대학시설만족3	0.711	1.002	0.042	23.949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설정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및 경로계수는 <표 5>, <표 6>과 같다.

측정모형 적합도 지수는 GFI, NFI, TLI, CFI 모두 .90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RMR과

RMSEA도 .50 미만으로 나타나 본 연구 측정모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측정모형의 타당도 검증 결과,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의 잠재변인 모두 .8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잠재변인별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도 .5 이상으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집중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본다.

4.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의 목적인 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 대학시설만족도, 자아정체감, 대학 및 학과만족도, 삶의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경로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표와 경로계수 추정치는 <표 7>, <표 8>과 같다.

구조모형 적합도 지표는 GFI, NFI, TLI, CFI 모두 .90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RMR과 RMSEA 역시 모형 수용 기준인 .80 미만으로 나타나 적합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및 유의도 분석결과, 대학생활만족도는 대학 및 학과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R.=14.689$, $p<.001$). 대학시설만족도는 대학 및 학과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R.=4.809$, $p<.001$). 대학생활만족도는 자아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R.=2.276$, $p<.05$). 대학 및 학과 만족도는 자아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R.=8.951$, $p<.001$). 자아정체감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R.=12.365$, $p<.001$). 대학 및 학과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R.=7.163$, $p<.001$).

특정 잠재변인이 다른 잠재변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모형의 효과 분해(Effect Decomposition)를 실시하였으며,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이에 따라 부트스트래핑 95% 신뢰구간을 검토한 결과, 제시된 모든 간접효과의 하한값과 상한값 범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구조모형 내 매개경로의 유의성이 모두 입증되었다. 구체적인 효과분해 결과는 <표 9>와 같다.

대학생활만족도는 자아정체감에 직·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활만족도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beta=.090(p<.01)$, 간접효과는 $\beta=.236(p<.01)$ 이며, 총효과는 $\beta=.326(p<.01)$ 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활만족도는 자아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

<표 7> 구조모형 적합도 지표

<Table 7> Goodness-of-Fit Indices for the Structural Model

χ^2	RMR	GFI	NFI	TLI	CFI	RMSEA
1048.841	.067	.938	.918	.919	.930	.058

<표 8>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Table 8> Path Coefficients of the Structural Model

잠재변인		측정변인	β	B	S.E	C.R.
대학생활만족	→	대학및학과 만족도	0.582	0.885	0.06	14.689***
대학시설만족	→	대학및학과 만족도	0.141	0.151	0.031	4.809***
대학생활만족	→	자아정체감	0.09	0.151	0.066	2.276*
대학및학과 만족도	→	자아정체감	0.405	0.449	0.05	8.951***
자아정체감	→	삶 만족도	0.403	0.843	0.068	12.365***
대학및학과 만족도	→	삶 만족도	0.236	0.547	0.076	7.163***
자아정체감	→	자아정체감1	0.628	0.751	0.033	22.965***
자아정체감	→	자아정체감2	0.813	1.085	0.04	27.037***
자아정체감	→	자아정체감3	0.785	1		
대학및학과 만족도	→	학과 만족도	0.732	0.964	0.048	19.956***
대학및학과 만족도	→	대학 만족도	0.747	1		
삶 만족도	→	삶 만족도1	0.517	0.605	0.028	21.646***
삶 만족도	→	삶 만족도2	0.929	1.131	0.024	46.578***
삶 만족도	→	삶 만족도3	0.867	1		
삶 만족도	→	삶 만족도4	0.746	0.949	0.027	35.255***
대학생활만족	→	대학생활만족1	0.542	1		
대학생활만족	→	대학생활만족2	0.734	1.547	0.077	20.217***
대학생활만족	→	대학생활만족3	0.739	1.514	0.075	20.297***
대학생활만족	→	대학생활만족4	0.689	1.569	0.08	19.538***
대학생활만족	→	대학생활만족5	0.669	1.359	0.071	19.2***
대학생활만족	→	대학생활만족6	0.644	1.397	0.074	18.76***
대학생활만족	→	대학생활만족7	0.602	1.105	0.061	17.985***
대학생활만족	→	대학생활만족8	0.486	1.167	0.075	15.525***
대학시설만족	→	대학시설만족1	0.697	1		
대학시설만족	→	대학시설만족2	0.84	1.181	0.051	22.954***
대학시설만족	→	대학시설만족3	0.694	1.011	0.044	22.987***

라, 대학 및 학과만족도를 매개하여 간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 및 학과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직·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 및 학

<표 9> 구조모형의 직·간접 효과분해

<Table 9> Decomposition of Direct and Indirect Effects in the Structural Model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β	B	β	B	β	B
대학생활만족	→	대학및학과만족도	.582**	.885**			.582**	.885**
대학시설만족	→	대학및학과만족도	.141**	.151**			.141**	.151**
대학생활만족	→	자아정체감	.090**	.151**	.236**	.397**	.326**	.548**
대학시설만족		자아정체감			.057**	.068**	.057**	.068**
대학생활만족		삶 만족도			.269**	.379**	.269**	.379**
대학시설만족	→	삶 만족도			.056**	.056**	.056**	.056**
대학및학과만족도	→	자아정체감	.405**	.449**			.405**	.449**
대학및학과만족도	→	삶 만족도	.236**	.219**	.163**	.151**	.399**	.370**
자아정체감	→	삶 만족도	.403**	.337**			.403**	.337**

** $p < .01$

과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beta=.236(p<.01)$, 간접효과는 $\beta=.163(p<.01)$ 이며, 총효과는 $\beta=.399(p<.01)$ 이다. 이를 통해 대학 및 학과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아정체감을 매개하여 간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및 논의

1.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활만족도, 대학시설만족도, 대학 및 학과만족도, 자아정체감,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대학 및 학과만족도와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Ⅱ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활만족도는 자아정체감과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 분석 결과,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과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활만족도가 자아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이의빈과 김진원(2023)의 연구와 일치하며, 자아정체감 형성이 다양한 환경 변인의 영향을 받고(Song & Park, 2009: 297), 특히 학교 환경 속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추구해 가는 경향이 크다는 주장(Lee & Cheon, 2003: 511)을 지지한다. 또한 대학생활만족도의 하위 요인인 학생 간 관계, 고민 상담, 진로상담 및 정보 제공, 다양한 교육과정이 자아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학과만족도, 교육 관계, 진로 요인이 자아정체감과 유의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선행연구들(Jang & Lee, 2019: 93; Lee & Kim, 2017: 121; Min & Yoo, 2015: 45)과 맥을 같이한다. 이는 대학생활 경험이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핵심 교육환경 요인임을 시사한다.

둘째, 대학생활만족도와 대학시설만족도는 대학 및 학과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경로가 확인되었다. 즉, 대학생활만족도와 대학시설만족도가 높은 수준일수록 대학 및 학과만족도 역시 유의미하게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대학생활만족도에는 교육지원, 진로·취업지원, 행정지원 등 대학 서비스의 다양한 요인이 포함되며(Jung & Kwon, 2017: 701), 교육서비스 품질이 전공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Kim & Cho, 2016: 145)와, 대학생활만족도와 교육과정만족도 간 유의미한 상관을 보고한 연구(Kim, 2022: 357) 등은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김주석의 연구에서 교육시설은 교육과정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Kim, 2022: 357), 본 연구에서는 대학시설만족도가 대학 및 학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대학생활만족도, 대학시설만족도, 대학 및 학과만족도의 상호 관련성을 보고한 여러 연구(Kang, 2020: 781; Kim & Lee, 2015: 29; Lee, Park, & Yoon, 2022: 1737)는 대학 교육환경의 질이 전공과 대학에 대한 학생 인식과 만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대학생활만족도와 대학시설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과 대학 및 학과만족도는 매개효과를 보였다. 구조모형과 효과 분해 분석 결과, 대학생활만족도와 대학시설만족도는 각각 대학 및 학과만족도와 자아정체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활, 시설, 학과 등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 및 학과만족도와 자아정체감을 통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로가 확인되었다. 학교생활적응이나 학업적 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Lee, 2023: 221; You & Park, 2015: 323)와, 학과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의미 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Kim et al., 2010)는 본 연구에서 확인된 변인 간 정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된다. 또한 본 연구는 자아정체감이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대학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이르는 경로에서 자아정체감이 간접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자아정체감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Joo, 2020: 21; Lim, 2021: 999; Park & Kim, 2022: 39)과, 긍정적인 교우 관계가 자아정체감 확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삶의 만족도를 매개한다는 연구(Joo, 2020: 21), 긍정적 정서·경험의 축적이 긍정적 자기개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연구(Park & Kim, 2022: 39)와도 일치한다. 아울러 이의빈과 김

진원(2023)은 자아정체감이 삶의 만족도에 간접효과는 있으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결과는, 선행 변인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정체감이 심리적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대학 차원의 정책 및 교육적 시사점

주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차원의 정책 및 교육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교직원과 동료 학생과의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학교생활에서의 관계 맺기와 선택은 교수·직원·조교와의 관계 형성,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선택 등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많은 대학에서 사제동행, 멘토링, 진로지도 등 교수-학생 프로그램은 운영되고 있으나, 행정직원·조교·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교수·직원·조교·학생이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교직원 역량강화 워크숍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은 상호 이해와 존중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학생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관계망을 확장함으로써 대학생생활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대학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 해결과 정서적 안정감 형성에 기여하여 결과적으로 삶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대학시설은 재정적 투자가 요구되는 영역이지만, 학생의 시설 만족은 융장함·청결함과 같은 외적 환경뿐 아니라 편리성·편안함과 같은 심리적 경험에도 좌우된다. 대학의 기본 시설이자 학생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은 강의실이다. 교수법 변화에 따라 일부 특수 목적 강의실이 도입되고 있으나, 학습자 중심 수업 확산에 비추어 볼 때 그 수는 여전히 부족하다. 개인 및 소그룹 학습이 가능한 분리형 책상·의자 구비, 전자교탁·빔프로젝터 등 교수매체의 정기 점검과 같은 기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교수자의 매체 활용 편의성과 학습자의 강의실 환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대학시설만족도 제고를 위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도서관과 학생 편의시설을 카페형 공간으로 조성하는 외적 변화뿐만 아니라, 학습공간의 조도, 좌석 탄력성, 책상 높이, 좌석 배치, 소음 등 다양한 학습스타일을 반영한 설계를 제공한다면 학습 몰입과 생산적 사고를 촉진하여 만족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 및 학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개방적인 소통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교수 연구실과 학과 사무실은 일반적으로 닫힌 공간으로 인식되며, 학과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을 통한 상담·방문 시간 안내에도 불구하고 학생 입장에서는 접근에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대학 및 학과에서 발생하는 많은 부정적 민원은 학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쉽게 얻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메타버스, 단체 채팅방, 온라인 게시판 등 비대면 채널을 활용해 대학이 제공하는 정보를 안내하고, 교수-학생·행정직원-학

생 간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개방형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과 학과가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서비스 제공처’로 인식될 때, 학생은 기대하는 교육적 서비스를 수월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는 대학 및 학과만족도를 높이는 기반이 된다.

넷째, 자아정체감은 대학 환경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삶의 만족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발달 요인이다.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학생은 학업·진로·대인관계 등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며 혼란을 경험하는데, 이때 자신을 이해하고 탐색하는 과정에 대한 대학의 적절한 지원은 혼란을 완화할 수 있다. 반대로 체계 없이 다수의 프로그램이 제시되면 선택의 어려움과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은 신입생 시기부터 전공과 희망 진로를 파악하여 학생이 미래 방향을 탐색할 수 있도록 전공·진로 로드맵을 제공해야 한다. 단순히 전공 교과와 비교과 프로그램 목록을 나열하는 안내서보다는, 학과별 전공·진로 로드맵을 바탕으로 학생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계획·구성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학기 초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학기 말 수정·보완하며 졸업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지원을 제공한다면, 학생은 자신의 성장 경로를 구체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학은 일회적·통합적 프로그램보다 학기·학년·전공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졸업생 우수 사례 공유와 장학금 등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로드맵과 지원은 미래 방향 설정과 목표 추구를 돕고 불안을 완화하여 자아정체감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학은 핵심역량 함양을 위해 다양한 교육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인관계, 소통, 협력, 자기관리 역량 등 대학생활을 통해 기를 수 있는 역량들이 삶의 만족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더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학생활 요소 전반에 대한 변인 탐색과 체계적 측정이 요구된다. 대학생 삶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하위 변인들을 정교하게 규명하고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대학 발전계획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3.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본 연구는 대학생활만족도, 대학시설만족도, 대학 및 학과만족도, 자아정체감, 삶의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대학 교육환경과 학습자 발달 간의 연계를 경험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대학생활만족도가 자아정체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학 및 학과만족도와 자아정체감이 이 관계에서 수행하는 매개 역할을 확인함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대학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와 자아정체감 형성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 제시하였다. 이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학의 노력이 곧 대학생활만족도와 대학시설만족도, 대학 및 학과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교육환경 개선 전략과 맞물려야 함을 시사

한다. 대학에 대한 실제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환경과 학생 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대학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이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향상된 삶의 만족도는 다시 학업·연구 등 대학의 본질적 기능인 학문의 영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며, 이에 따른 후속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Ⅱ 5차년도(2021) 자료를 활용하였기에 폭넓은 표본을 확보했다는 강점이 있으나, 이미 구성된 척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제한이 있다. 또한 이 자료는 2020년 12월 기준 대학생 경험을 반영하고 있어, 이후 몇 년 간의 고등교육 환경 변화와 대학생 경험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시계열적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본 연구의 초점은 특정 시점의 만족도 수준을 파악하는 데 있기보다는, 대학생 활만족도와 대학시설만족도, 대학 및 학과만족도, 자아정체감, 삶의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와 매개 기제를 규명하는 데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최근의 자료와 종단 설계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확인된 구조적 관계가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비교·검증하고, 대학과 관련된 요소를 보다 세분화하여 각 영역을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는 타당도 높은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대학 및 학과만족도는 대학생활만족도 문항과의 내용 중복을 최소화하고 학생이 지각하는 전반적 평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단일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로 인해 전공 교육과정, 교수-학생 관계, 학과 분위기 등 세부 차원을 구분해 분석하지 못했다는 제한이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다문항 척도를 활용하여 대학 및 학과만족도의 하위 요인을 세분화하고, 각 요인이 자아정체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에서 자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여 입학 초기부터 졸업 이후까지 삶의 만족도 수준과 관련 요인들을 종단적으로 측정한다면, 향후 대학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만족도와 자아정체감을 높이기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은 측정된 지표를 바탕으로 대학교직원과 학생 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개발·시행될 때 질적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대학교육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 Astin, A. W. (1993). Diversity and multiculturalism on the campus: How are students affected?. Change: *The Magazine of Higher Learning*, 25(2), 44-49.
- Baek, O. K. & Kim, C. J. (2014). Analysis on the primary of character strength that affects the life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1), 228-236.
- Baek, Y. M. (2017). The Moderating Effects of Flow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atisfaction with life,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5), 490-496.
- Cho, H. J. & Yoon, J. Y. (2015). The Influence Factor of Elementary students's Life Satisfaction. *Soonchunhyang Journal of Humanities*, 34(1), 157-187.
- Chung, K. A. & Cho, J. H. (2015). Differences between Major Satisfaction, University Life Adjustment, Self-Esteem and Career Identity according to the Time of Department Selection of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at One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6(5), 143-155.
- Diener, E. & Emmons, R. A. (1984). The independ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5), 1105-1117.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o. 7). WW Norton & company.
- George, L. K. (1979). The happiness syndrome: Methodological and substantive issues in the study of social-psychological well-being in adulthood. *The Gerontologist*, 19(2), 210-216.
- Jang, H. J. & Lee, Y. J. (2019). The Effect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Ego-Identity on College Life Adaptation.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5(2), 93-99.
- Jo, J. O. & Song, J. Y. (2011). Relationship of Department Satisfaction to Career Decision Level i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20(3), 287-301.
- Joo, J. Y. (2020). A structural analysis of intimacy, self-identity, career identity, life satisfaction: Does intimacy precede self-identity, career identity, satisfactio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3(4), 21-41.
- Joo, K. P. (2015). Revisiting the Korean Youth Welfare Policy through the Conceptual Discussion of Emerging Adulthood in Korea. *Korean Journal of Youth Welfare*, 17(1), 189-213.
- Jun, S. H. (1998). *Attributional style, depression,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oGang.
- Jun, S. K. (2018). Factors Affecting College Life Satisfaction: Focused on Individual, University,

- Negative/Positive Emotions, and Locality Perception Variable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9(5), 1327-1340.
- Jung, J. Y. (2013). The Analysis on the Casual Model between University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Occupational Satisfaction mediated by Occupational Values.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1(1), 53-83.
- Jung, S. Y. (2017). The impact of collective life satisfaction on the birth rates at the national level. *Family and Culture*, 29(1), 105-127.
- Jung, Y. J. & Kwon, J. S. (2017).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University Students' School Life Satisfaction.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11), 701-708.
- Kang, D. H. (2020). A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of School Life Satisfaction in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1(5), 781-795.
- Kim, G. H. (1998). *A study on determinants of university choice and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YeungNam.
- Kim, H. S., Kim, O. J., Kang, M. H. & Cho, J. Y. (2010). Differences in Department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Meaningfulness in Life Among Regional Privat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31(2), 267-282.
- Kim, I. S. & Jung, J. Y. (2010). The comparison study between the groups on campus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Difference betwee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non-Seoul Metropolitan Area.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8(3), 241-260.
- Kim, J. H. (2012).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on Their School Life Adapt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PaiChai.
- Kim, J. S. (2022). Effect of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on Curriculum Satisfaction and Enrollment Rat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Undergraduate Integrated Recruitment and Individual Major Recruitment. *Culture and Convergence*, 44(6), 357-374.
- Kim, J. W. & Lee, M. H. (2015).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Adult Attachment, Self-Differenti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University Life Adjustment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3(1), 29-53.
- Kim, K. M. (2021). The Dual Mediation Effects of Optimism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between Positive Emotion and College Satisfaction. Locality and Globality: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45(1), 147-168.
- Kim, M. J. & Cho, W. J. (2016). The Effects of Education Service Quality on Students'

- Satisfaction for Their Major and Students' Career Search Activity: Focusing on Students of Air Service Depar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and Sciences*, 31(8), 145-164.
- Kim, O. T. & Lee, S. H. (2011).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Life Adjustmen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ollege Students i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Science*, 20(3), 53-67.
- Kim, S. J. (2018). The Impact of the Motives of College Students for Choosing Majors on Career Decision-Making - Using Self-efficacy as a Mediation Effect.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Electronics,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11(3), 221-228.
- Kim, T. R. & Park, J. A.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Environment and Students satisfac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16(2), 239-258.
- Kwon, D. B. (2001). A comparative Case Study On Linkage Between Job Preparation Education and Workplace Continuing Education in US, UK and Germany. *The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39(2), 259-284.
- Kwon, H. K. & Kim, B. J. (2021). The mediation effect of job mat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education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of college graduates.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30(2), 51-79.
- Lee, E. B. & Kim, J. W. (2023).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intrusiveness and life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ego identity, life goals, and depression. *Forum For Youth Culture*, (73), 63-96.
- Lee, H. J., Park, M. R. & Yoon, J. W. (2022).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University Climate,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Job Search, and Self-efficacy.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3(3), 1737-1749.
- Lee, H. K. & Kim, J. M. (2017).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Ego-Identity, College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21), 121-143.
- Lee, H. L. & Cheon, M. S. (2003). Relationship Analyses Between Adolescents' Ego-Identity and School Life Adjustm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0(4), 511-541.
- Lee, H. R. & Cho, C. H. (2008). A Study on the Efficient Management of Space and Facilities in National Universities.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ies*, 15(5), 21-32.
- Lee, J. Y. (2023).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Life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Review of Social Science*, 8(1), 221-235.

- Lee, K. M. (2015). *The Effects of the positive mental health and self-identity on career mat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Korea.
- Lee, L. J. (2010). A Study on Effect of the Subjective Well-being on Job Stress.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13(1), 251-290.
- Lee, Y. H. & Kim, B. W. (2010). Lifelong Capability Develop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Ego-Identity with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Office Workers. *Journal of practical engineering education*, 2(1), 135-145.
- Lee, Y. S. (2014). *The Effects of Stress and Career Adapt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on Life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DanKook.
- Lim, O. J. (2013).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Satisfaction with High School, University and Career.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IJACE))*, 16(4), 1-30.
- Lim, S. A. (2021).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Intrinsic Goal Content and Life Satisfaction using Growth Mixture Modeling.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1), 999-1022.
- Logue, C. T., Hutchens, T. A., & Hector, M. A. (2005). Student leadership: A phenomenological exploration of postsecondary experience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6(4), 393-408.
- Min, J. A. & Yoo, K. L.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s and Commitment to Their Career Choices: The Mediation Effect of Ego Identity.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9(1), 45-64.
- Na, E. S. & Shin, S. Y. (2022). The effect of admission satisfaction,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career confidence of students on campus life satisfaction: A case of S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safety culture*, (19), 45-62.
- Neugarten, B. L., Havighurst, R. J., & Tobin, S. S.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2), 134-143.
- Pakr, B. N. (2006). *Effects of the tailored exercise program on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i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University.
- Park, J. A. & Cho, M. H. (2011).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sports participation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35(1), 17-28.
- Park, S. B. & Kim, H. S. (2018). The effects of campus life satisfaction on career identity and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fourth year university students in Gwangju and Jeonnam.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8), 261-275.
- Park, S. Y. & Kim, K. M. (2022). The Effect of Parent Attachment on Life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 the mediation of self-identity. *The Korean Journal of East West Mind Science (Kewms)*, 25(1), 39-52.
- Park, W. J. & Choi, B. O. (2020). Clustering by Major Selection Motivations and Group Differences in Dropout Intention, Major Satisfaction, College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7(7), 183-209.
- Prasoon, R., & Chaturvedi, K. R. (2016). Life satisfaction: a literature review. *The Researcher-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1(2), 25-32.
- Shin, J. R. & Park, I. W. (2021).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University Education Satisfaction, Work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oderated Effect of College Career Choice and Job Preparation Program.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7), 569-583.
- Shin, Y. B. (2023). Exploring the predictive variables of university satisfaction and GPA of four-year university students: Using Random Forest. *Journal of Higher Education Research*, 6(1), 39-67.
- Slavinski, T., Bjelica, D., Pavlović, D., & Vukmirović, V. (2021). Academic performance and physical activities as positive factors for life satisfa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Sustainability*, 13(2), 1-17.
- Song, H. O. & Park, A. C. (2009). A Structural 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Adolescents' Ego-identity.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3(2), 297-321.
- Song, Y. J. & Cho, G. P. (2015).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Learning Flow on Thei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5(4), 355-374.
- Yang, J. W. (2012). *The Longitudinal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Faculty Satisfaction Learning Attitude and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Korea.
- Yim, H. R. (2020). Trajectory Types and Predictors of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Life. *Korean Journal of Youth Welfare*, 22(4), 183-210.
- You, J. H. & Park, H. S. (2015). A Study on the Path Analysis of Influence Factor on Life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school life adaptation.

-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29(3), 323-348.
- Yun, I. H. (2021). The Effects of Self-directed Learning on College Life Adjustment in COVID-19 Pandemic: Focusing of Multi-Parallel Triple Mediation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Learning Flow,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11(4), 119-142.
- 김유빈, 이영민 (2018). 청년층 고용·노동 통계 및 실태조사.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Translated in English) Kim, Y. B., & Lee, Y. M. (2018). *Employment and labor statistics and survey of youth*. Sejong: Korea Labor Institute.
- 노경섭 (2019). 제대로 알고 쓰는 논문 통계분석: SPSS & AMOS (개정증보판). 서울: 한빛아카데미(주). (Translated in English) Noh, K. S. (2019). *The proper methods of statistical analysis for dissertation SPSS & AMOS (Revised and expanded ed.)*. Seoul: Hanbit Academy.
- 신중식, 박영숙, 류호섭, 최병권, 유용상 (2019). 대학시설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Translated in English) Shin, J. S., Park, Y. S., Ryu, H. S., Choi, B. K., & Yoo, Y. S. (2019). *Theory and practice of university facilities*. Seoul: Hakjisa.
- 허준 (2013). 허준의 쉽게 따라하는 Amos 구조방정식 모형. 서울: 한나래출판사. (Translated in English) Heo, J. (2013). *Easy AMO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oul: Hannarae Publishing.